

우렁각시와 성실한 총각



작가 AI도움받아 김철상쌤

작가프로필



부안의 푸른 흙을 일구고, 다정한 주간보호 요양보호사로 세상에 온기를 전해온 작가입니다. 주말이면 산에 올라 호흡하고, 겨울의 포근함을 사랑하는 그의 무기는 '상대의 말을 먼저 듣는 깊은 귀'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믿으며, 인생이라는 악보 위에 색소폰의 감미로운 선율처럼 따스하고 성실한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2026년 5월부터 기획, 7월 완성

김철상

AI랑 함께 하는 새로운 옛날이야기

"안녕! 정겨운 옛날이야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전래동화에 'AI 시대'의 상상력을 더한 특별한 패러디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마음을 다독이는 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지혜니까요.

우리는 AI와 도란도란 소통하며 그림을 그리고, 부안의 고운 말씨로 이야기를 새롭게 엮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다정하게 손잡고 디지털 세상을 달리는 등 상상력 가득한 패러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부안의 맑은 바람을 닮은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되길 바랍니다. 정성껏 빚어낸 'AI 시대 패러디 전래동화' 속으로 다 함께 떠나볼까요?



1장: 해 질 녘의 논길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강물이 졸
졸 흐르는 산골 마을이었어요.

총각은 오늘도 밭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 열심히 일했지요.

해가 누엏누엏 지자 총각이 허리를
쭉 폈어요.

“오매, 오늘 농사일은 겁나게 되다
잉…… 세바지게 일했더니 온몸이
노곤하다 야.”

총각은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부지
런하고 마음씨 착한 농부였습니다.



2장: 옹골진 우렁이와의 만남

집으로 돌아가던 총각이 논가 진흙
더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풀잎 사이로 둥글고 커다란 우렁이
하나가 쏙 숨어 있었거든요.

진물 속에서도 무지갯빛으로 반짝
이는 아주 신비로운 우렁이였지요.

“어이쿠, 요놈 참 옹골지다! 무섭지
않으게 언능 우리 집으로 가자잉.”

총각은 우렁이를 집으로 가져와 장
독대 옆 물동이에 소중히 담아두었
답니다.



3장: 코를 콕콕 찌르는 냄새

달가닥, 달가닥! 다음 날 총각이 일을
마치고 부엌문을 열었을 때였어요.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마당까지 풀
풀 풍겨왔지요.

깨끗하게 치워진 상 위에는 하얀 쌀밥
과 반찬이 가득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새콤한 지(김치)와 달콤한 무시(무)
국, 파릇파릇한 솔(부추) 반찬이 반짝
였어요.

“오매! 어떤 양반이 차렸는지 참말로
게미가 있다!”

총각은 음식을 후루룩 정신없이 먹으
며 가슴이 행복으로 벅차올랐어요.



4장: 물동이에서 피어난 안개
누가 밥을 차려주는지 너무나 궁금
했던 총각은 괴를 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하러 가는 척하다
가 몰래 돌아와 장독대 뒤에 숨었
지요.

찌꺼만 시간이 흐르자, 물동이에서
하얀 안개가 몽실몽실 피어올랐어
요.

그러더니 안개 속에서 고운 각시가
사뿐사뿐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어
요?

각시의 등에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
는 커다란 우렁이 껍질 배낭이 매
여 있었답니다.



5장: 손을 꼭 잡은 두 사람

총각은 가슴이 쿵쿵거리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문을 벌컥 열고 숨이 차게 달려갔지요.

“찌개만요, 각시님! 어디 가실라고 기어, 안 기어?”

깜짝 놀란 각시가 물동으로 돌아가려 하자, 총각이 각시의 고운 손을 꼭 잡았어요.

“제발 맥없이 사라지지 말고, 나랑 같이 살아주소!”

총각의 간절한 눈빛을 본 각시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날마다 싱글벙글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6장: 심술쟁이 사또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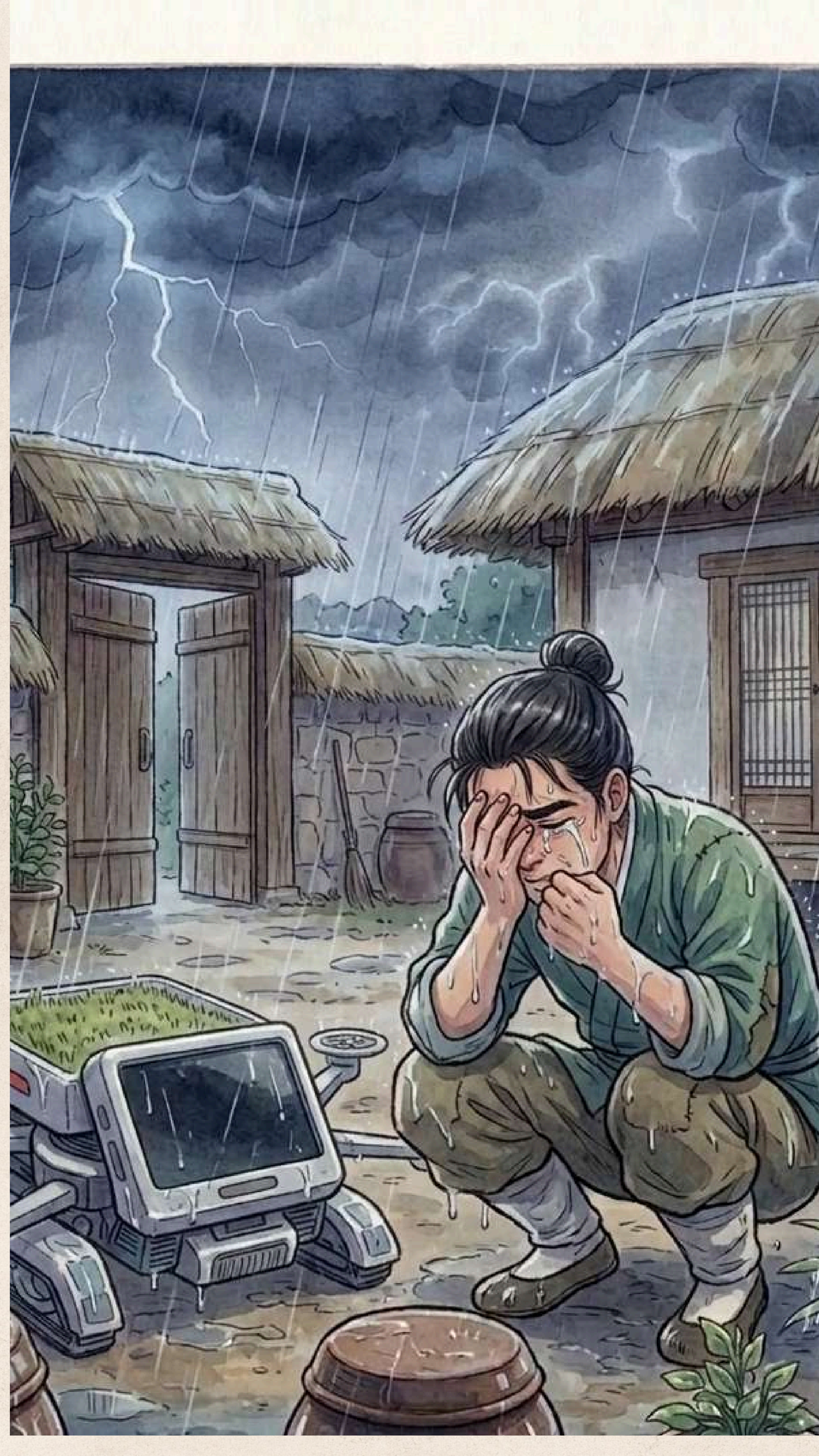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욕심쟁이 사또가 소문을 듣고 포졸들을 거느린 채 들이닥친 거예요.

“이리 오너라! 요사스러운 우렁이와 각시를 당장 내놓아라!”

사또는 총각을 밀쳐내고, 우렁각시를 억지로 가마에 태워 빼앗아 가버렸어요.

마을의 자랑이던 스마트 농기계 화면마저 치직거리더니 [ERROR] 글자를 띄우며 깜짝 멈춰 섰지요.



7장: 눈앞이 깜깜해진 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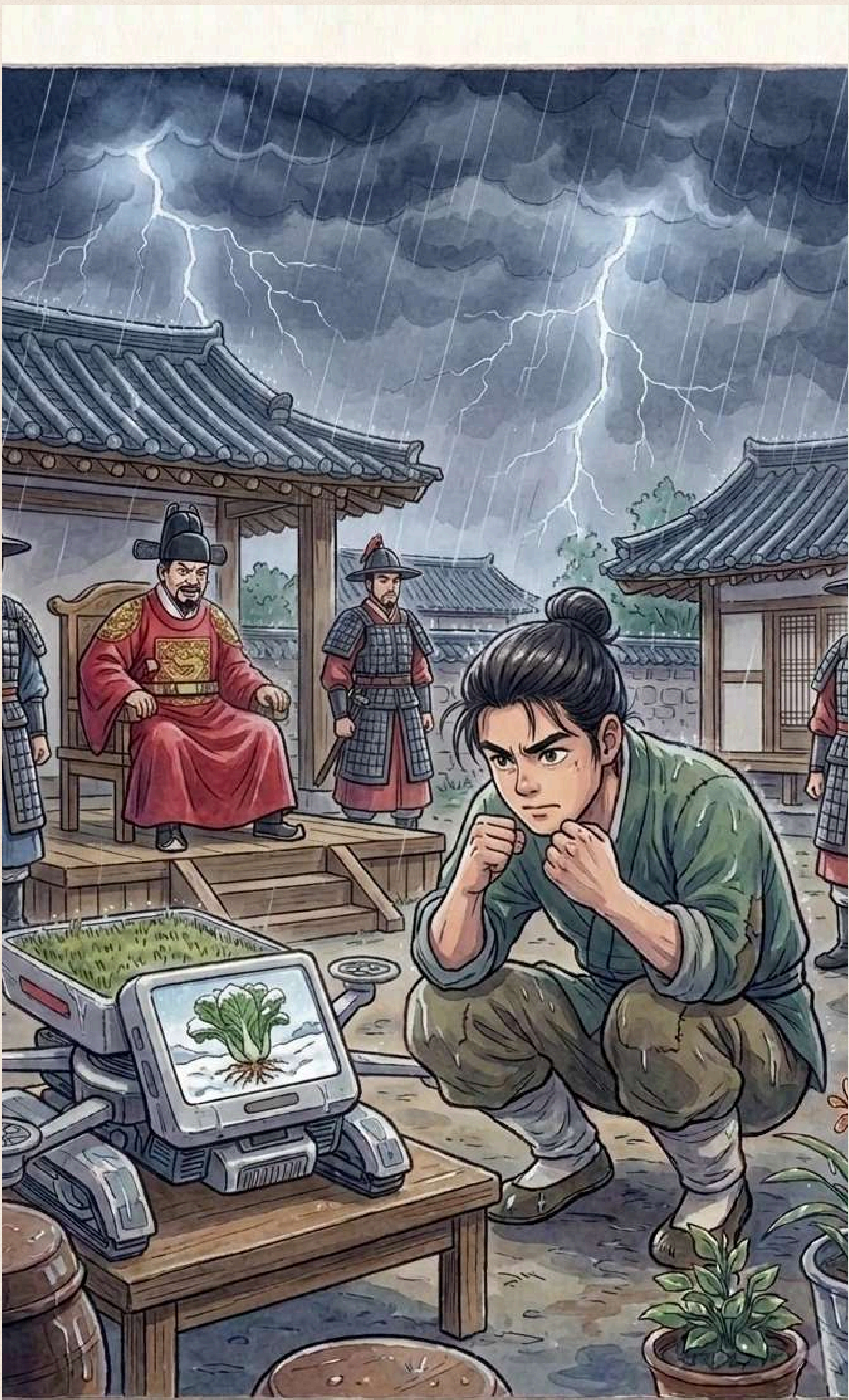
혼자 남은 마당은 쓸렁하기만 했어요.

총각은 눈앞이 깜깜해지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마당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지요.

하늘마저 슬픈지 천둥이 우르르 쿵 울리고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졌어요.

하지만 총각은 입술을 꼭 깨물며 눈물을 닦았어요.

‘이대로 실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 내가 각시를 꼭 구해올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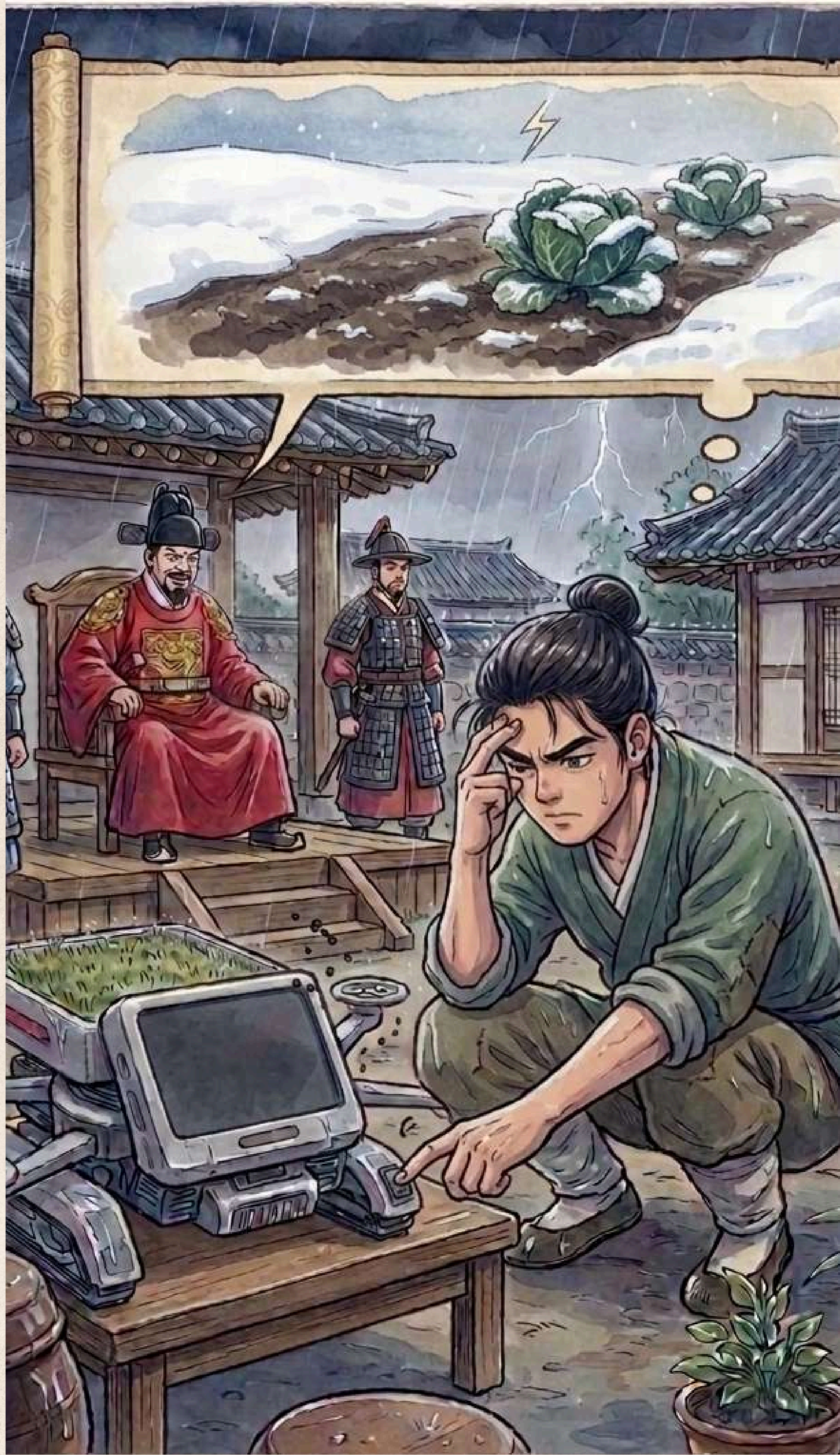
8장: 당당한 외침과 사또의 문제

총각은 각시를 구하기 위해 관가로
썩썩거리며 달려갔어요.

“사또! 나와 내기를 합시다! 내가 이
기면 각시를 돌려주시오!”

사또는 코방귀를 꺾며 절대 풀 수 없
는 수수께끼를 내밀었어요.

“하하! 좋다. ‘부안 땅에서 자라나,
맛을 보면 아삭하고, 매콤하게 지(김
치)를 담가 먹기도 하지만, 원래 성질
은 겨울철 하얀 눈 속에서도 시들지
않고 꽃꽂이하게 자라나는 고소한 채
소’는 무엇이나? 맞히지 못하면 네
놈의 목숨은 없다!”



9장: 주인공의 진짜 지혜

사또의 질문에 총각은 손가락으로 이마를 짚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관가 구석에 있던 농업용 AI 기계가 반짝이며 화면에 힌트를 띄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총각은 고개를 단호하게 흔들며 기계를 꺼버렸지요.

‘아니야, 내 머리로 직접 풀어야 뚝뚝하게 각시를 데려올 수 있어!’

총각은 고향 땅의 흙과 계절을 떠올리며 당당하게 외쳤어요.

“정답은 눈 속에서 자라나 단맛이 기가 막힌 ‘부안 겨울 벼락추(눈속간동배추)’요!”

우렁각시와 성실한 총각



10장: 다시 찾은 보금자리

문제를 멋지게 맞히자 사또는 얼굴이 붉어지며 씩씩대고 도망쳐 버렸어요.

마침내 다시 만난 총각과 우렁각시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고장 났던 기계도 언제 그랬냐는 듯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각시는 우렁이 배낭을 매고 졸랑졸랑 걸으며 다시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었어요.

“찌꺼만 기다리쇼! 얼른 밥 차려올 테니까요!”

용기 있는 총각 덕분에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